

마태복음 4:1-11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10절).

오늘은 사순절 첫째 날인 재의 수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받으셨던 광야 시험과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함께 숙고하면서 사순절 여정을 떠나봅시다.

사탄은 40일 동안 금식함으로 인해 굶주리셨던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유혹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시며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생존의 위협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광야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에 대한 질문에 부딪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가? 아니면 생산과 풍요의 우상들을 의지해야 하는가? 그들은 이 질문에 바르게 대답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통해 떡의 유혹을 이겨냅시다.

두 번째 시험은 좀더 교묘하고 독창적인 유혹으로 보입니다. 사탄은 ‘네가 만일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맞다면 성전 꼭대기에서 땅으로 몸을 날려 증명해 보아라’라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해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존재감과 정체감이 도전받을 때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증명해 보이라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자신을 드러내 증명해 보이고 싶을 때, 오히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드러냅니다.

세 번째 시험은 권력과 영광의 욕구에 대한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에게 었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모두 주겠다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야곱은 항상 세상의 무언가를 움켜쥐려는 인생을 살아가, 압복강가에서 하나님을 움켜쥐었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굴복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굴복했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부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는 말씀으로 이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당신은 무엇 앞에 혹은 누구 앞에 었드리고 있습니까?

올 사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었드리는 삶, 즉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봅시다. 떡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었드리는 삶을 함께 훈련해 봅시다.

실천적
묵상

시간을 떼어 본문의 말씀을 혼자서 깊이 묵상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회개하는 시간도 가져봅시다.